

2026년 8월 셋째 주, 구역 공과

28 누가 이 나라를 움직이는가?

-다니엘 5장 17~23절(구약 1242)-

예배순서

• 찬송: 309/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310/ • 주기도문

환영/ 마음 열기

요즘 가장 많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가?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어렵다”라고 느낀 적이 있는가? (스마트폰 사용, 키오스크 등)

말씀 속으로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혹은 기업이, 초 강대국이 나라를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도들은 세상의 해석이 아니라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구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권모술수나 군사력이 역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배후에서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단호하게 증언한다.

1. _____이 나라의 흥망성쇠(興亡盛衰)를 다스리신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단 5:21)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은 귀족 천 명을 모아 대대적인 술잔치를 벌였다. 당시 바벨론 성벽은 높이 약 100m, 두께 약 20m에 달하며 유프라테스강을 이용한 해자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수십 년간 버틸 수 있는 식량과 완벽한 방어막을 맹신한 벨사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온 금은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벽면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 글씨(메네 메네 테켈 우바르신)대로, 페르시아 연합군이 강바닥 수로를 통해 기습 침투하여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하고 제국은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무너졌다(단 5:30~31). 역사의 격변은 인간의 군사력이나 계산으로 예측할 수 없다. 1945년 일제의 극심한 민족 말살 통치 속에서도 하루아침에 항복과 광복이 찾아왔듯, 한 나라의 운명은 세상의 권력자나 경제력에 달려 있지 않다. 성경은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단 2:21), “나라는 여호와와 그의 것이요 여호와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시 22:28), “민족들을 커

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욥 12:23)라고 선포한다. 인간의 시각을 넘어 모든 역사를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2. 위정자들이 겸손히 _____임을 자각하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딤후 2:1~2)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선친 느부갓네살이 교만으로 인하여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었던 역사의 교훈을 증언하며,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단 5:22)라며 준엄하게 일침을 가했다. 권력의 최정점에 오른 자는 권력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것인 줄 착각하고 망각하기 쉽다. 세상 정치는 당리당락과 진영 논리에 갇혀 사생결단식 투쟁을 반복한다. 조선 시대의 예송논쟁처럼 백성의 민생과 무관한 명분 싸움에 매몰되는 것이 권력의 본성이다. 그러나 성경은 정치권력이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와 평화를 위해 잠시 맡겨주신 ‘위임된 권력’임을 명확히 한다(롬 13장). 따라서 성도는 특정 진영의 승리를 넘어,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국민 앞에 겸손하여 국가와 민생을 섬기도록 ‘골방의 기도’를 우선해야 한다. 기도가 정치적 분노와 비난보다 앞설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과 지혜로 지켜주신다.

3.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_____으로 바로 서야 한다.

다니엘서 7~12장에 나타난 거대한 세상 제국들의 공통된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다(단 11:3, 16, 28, 36). 그러나 제국들은 영원하지 못하고 모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하나님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 다니엘을 향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어”(단 9:23, 10:11)라고 부르시며, 역사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담대하라고 명하셨다. 다니엘은 왕의 재물과 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시대의 파수꾼이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여론이나 뉴스에 일희일비하거나 분노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영적·도덕적 방파제로 서야 한다. 매일 뉴스를 접할 때 비난에 앞서 위정자와 나라를 위해 1분간 먼저 중보하는 실천이 파수꾼의 사명이다.

나눔과 기도

- 가정이나 직장, 교회에서 내 주장이나 자존심을 앞세우다 후회했거나, 반대로 마음을 낮추었을 때 관계가 회복된 경험이 있는가?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위정자들, 열방, 홀리 위크 특별새벽기도회를 위해 기도하자.